

개발제한 규제 완화… 전국 15곳 4076만㎡ 생산거점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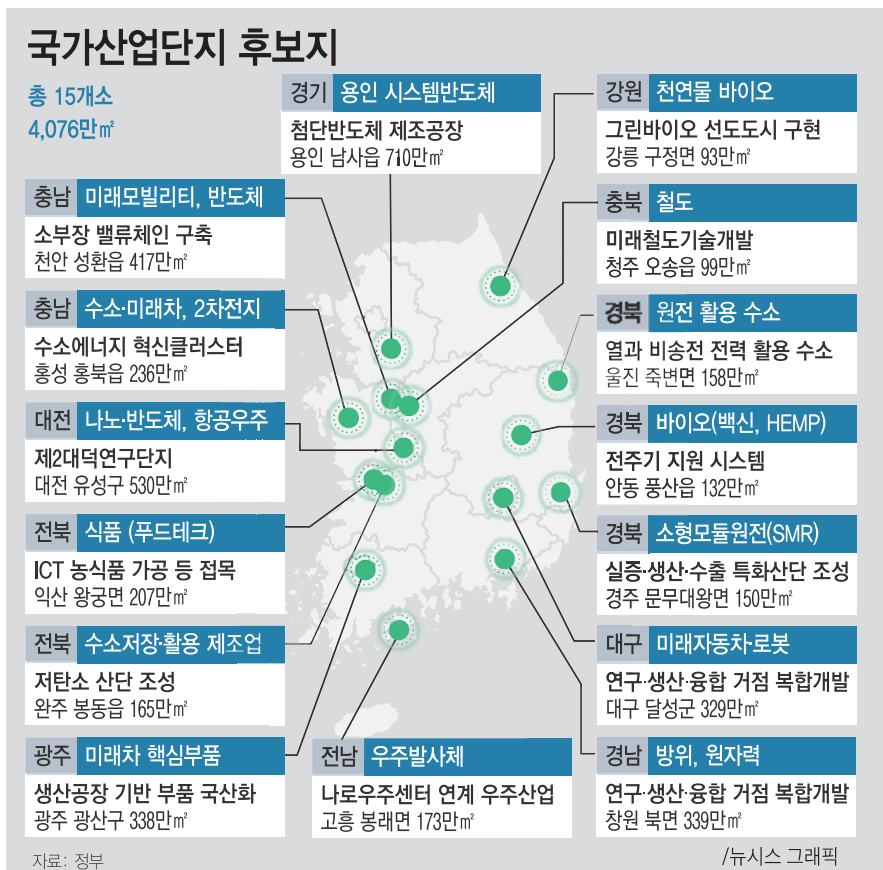
지역 강점 기반 특화산업 육성
산업벨트범정부추진지원단 구성
충청권, 미래차 등 모빌리티 강화
호남권, 우주 등 미래산업 기지 조성

정부가 미래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의 산업강점에 기반한 특화산업을 육성해 전 국토에 균형된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확보하기로 했다. 경기도 용인시에 여의도 면적(290만㎡)의 2.4배에 달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또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총 4076만㎡(1200만평) 규모의 국가첨단산업벨트 후보지 15곳을 지정해 기업 투자를 전폭 지원한다. 국가첨단산업벨트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 완화에도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 및 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첨단 과학기술 연구기능과 함께 제조, 판매, 수출 등의 제품 생산기능이 융합된 산업 성장거점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간 지방 국가산단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를 적



극 완화해 산업단지 지정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첨단산업이 지역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후보지와 인근 거점을대상으로 도심융합특구(국토부),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특화단지(산업부), 스마트혁신지구(중기부) 등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지정해 본격 추진한다.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에 따

르면, 경기권에서는 용인시에 710만㎡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해 반도체 산업을 중점 육성한다.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을 5개 구축하고, 최대 150개 국내의 소부장과 연구기관 등을 유치한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천안·청주·홍성을 후보지로 선정해 미래차와 부품, 철

도차량 등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한다. 대전 유성구에는 530만㎡ 규모로 나노·반도체와 우주항공산업이 중점 육성된다. 관련 종합연구원을 설립하고 반도체 전·후방산업 지원이 연계되며, 대전 제2대덕연구단지가 조성된다. 천안에는 417만㎡ 규모로 미래모빌리티와 반도체 산업을 유치, 육성한다. 미래모빌리티 소부장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국가산단과 배후 뉴타운을 결합한 클러스터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청주와 홍성에는 각각 철도와 수소·미래차, 2차전지 산단이 구축된다.

호남권에서는 광주(미래차 핵심부품), 고흥(우주발사체), 익산(푸드테크), 완주(수소저장·활용 제조업)에 지역산업을 기반으로 한 미래산업 기지가 조성된다. 광주에는 2곳의 완성차 생산공장을 기반으로 미래차 핵심부품 국산화와 첨단기술 개발 등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이 추진되고, 고흥 산단에는 나로우주센터 연계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민간발사장 등 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인프라 구축이 추진된다. 익산에서는 IC T 농식품 가공 등을 접목한 푸드테크 기술 기반 조성, 완주에서는 중대형 수소 상용차 및 수소저장·운송용기, 수소용품 거점의 저탄소 산단이 조성된다.

경남 창원시는 기존 창원 국가산단

의 노후화를 고려해 방위·원자력에 대한 생산·첨단 연구를 지원하는 산단이 조성되고, 대구에는 미래자동차·로봇 등 첨단 스마트기술을 육성하는 산단이, 경북 안동군에는 백신 등 바이오의약 산단이 추진된다. 경북 경주시는 소형모듈원전(SMR) 생산 등에 특화한 산단을, 경북 울진군에는 원전의 열과 비송전 전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을 중점 육성하는 산단이 구축된다. 강원군에서는 강릉에 지역 청장자원을 활용한 제약과 화장품 등 바이오 특화산단이 추진된다.

정부는 기존과 달리 단순한 제조·생산 거점이 아닌 기술개발과 실증, 유통 등이 포함된 산업 전주기 여건을 조성하고, 후보지 인근의 산업 거점과 연계해 완결된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첨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계약학과 확대, 특성화 대학(원), 창업중심대학 지정, 마이스터고 지원방안 발굴 등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우수 인재 양성 기반도 강화한다.

수요자요구를 반영한 신속한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사전협의, 신속예타 등을 통해 적기 개발을 추진하고, 기업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추진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삼성·현대·LG 등 대기업 함께 뛰다… ‘대규모 투자·생태계 조성’ 뒷받침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300조 투자
현대차그룹 전기차 생산거점 확대
LG 배터리 분야 등 54조 국내 투자

삼성전자가 선택한 미래 반도체 거점은 미국도, 중국도, 동남아도 아닌 한국이었다. 막대한 투자를 통해 메모리와 파운드리 뿐 아니라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패키징(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등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해 ‘K-반도체’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오랜 동안 사회적 난제였던 지역 균형 발전까지 해결하는 묘안을 내놨다.

현대자동차그룹과 LG그룹 등 주요 대기업들도 함께한다. 경영 위기 속에서도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힘을 모으겠다는 방침이다.

◆ 삼성, 반도체 ‘게임 체인저’로

삼성전자는 15일 정부가 발표한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20년간 30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중국을 향한 무역 제재에 더해 미국이 까다로운 반도체 투자 지원 조건을 내걸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 지속 가능성에 위기감이 감도는 상황, 삼성전자가 결국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해답을 찾은 것.

삼성전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통해 파운드리에서도 ‘조격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평택과 미국 오스틴 및 테일러 신공장까지 합쳐도 경쟁

사인 TSMC에는 생산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EP 용인 클러스터를 활용해 추격에 나선다는 포부다. 최근 들어 3나노와 게이트올러라운드(GAA)를 선제적으로 양산하면서 기술적으로는 우위를 점한데 이어 ‘물리적인 한계’로 지적됐던 생산량 문제를 해결하면서 ‘진정한 경쟁’을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용인 클러스터는 기흥과 화성, 평택과 이천 등 반도체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소부장 기업과 패키징 업체들이 모인 판교와도 연계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완성하게 된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등 양산 팹에서 디자인 하우스와 패키징, 소부장에 이르는 반도체 생태계와 국내외 우수 인재를 집적한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를 선도하는 모델로 성장하는 것. 양산에만 쏠려있던 국내 반도체 생태계도 비약적으로 도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이번 투자 결정은 한국 경제 성장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직간접 생산 유발이 700조원,

고용 유발 효과도 160만명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세계 관계자는 “향후 한국이 글로벌 최첨단 반도체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자동차와 IT 등 기존 산업은 물론 AI·메타버스·챗GPT 등 다양한 미래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전국 순회한 이재용, 균형 발전에 60조

삼성은 반도체 뿐 아니라 지역 사업장에도 10년간 60조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반도체 패키징뿐 아니라 최첨단 디스플레이, 차세대 배터리와 첨단 MLCC 등 중점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까지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이재용 회장이 취임 후 지역 사업장을 순회한 이유가 밝혀진 셈.

삼성은 “이번 투자 계획은 지역 풀뿌리 기업과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충청권에는 반도체 패키지 특화단지와 첨단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차세대 배터리 마더 팩토리를 조성한다. 천안과 온양에 삼성전자 패키징 사업장과 아산에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천안 삼성SDI ‘차세대 배터리’ 연구·생산 시설 구축과 세종에 삼성전기 고부가가치 패키지 기반 생산 거점 확대 등이다.

경상권에서는 차세대 MLCC 생산 거점과 글로벌 스마트폰 마더 팩토리, 고부가가치 선박 생산 거점을 육성한다. 호남권은 스마트 가전 제품 중심 생산량을 확대하며 미래 가전 사업에서 더 큰 역할을 맡기로 했다.

삼성은 지역 기업을 위해 ▲반도체 생태계 육성 프로그램 ▲기술 및 자금 지원 ▲지역 인재 양성 지원 등을 입체적으로 전개하며 지역 산업 부흥에 기여할 계획이다. 10년간 3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지역 인재 육성에도 팔을 걷어 붙인다. 지방 대학에도 반도체 계약학과를 개설하고, 지방 청년을 대상으로 삼성 청년S/W아카데미(SSAFY)와연계해 소프트웨어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C랩 신규 거점도 구축한다.

◆ 현대차·LG 투자 확대

현대자동차그룹은 2030년 전기차 ‘톱 플레이어’ 도약을 목표로 2025년까지 63조1000억원을 국내에 투자하기로 했다.

국내를 전기차 주요 생산 거점으로 연간 144만대를 생산하도록 육성한다

는 계획. 이를 통해 2030년 글로벌에서 연간 323만대 전기차 생산과 글로벌 점유율 12%를 달성한다는 포부다.

전동화와 친환경을 위한 투자금액은 16조2000억원을 편성했다.전동화 경쟁력 확보와 전동화 부품 선행 기술 개발 등 R&D, 전용 공장과 라인 증설,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충전 등 전략 투자 등을 포괄한다.

로보틱스와 항공 모빌리티 등 미래 달것과 함께 커넥티비티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기술 개발 및 신사업 추진에도 8조9000억원을 쏟는다. 신차 개발 등 제품 차별화와 공장 스마트화 등 시설 투자에도 38조 투자를 예고했다. 상생 협력에도 5조2000억원 규모 투자를 추진한다.

LG그룹 역시 2027년까지 54조원 규모 국내 투자를 확정했다. 배터리를 비롯해 전기차 부품 및 소재 사업과 미래차 분야,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주력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포부다. AI와 소프트웨어, 바이오와 헬스케어, 그리고 클린테크 등 미래 시장 창출을 위한 분야에도 투자를 집중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미래차 관련 산업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분야에 44조원, AI 및 소프트웨어 분야와 바이오, 헬스케어 등에 10조원을 투자한다. 미래 주력 사업에 힘을 더하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미래 기술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용 기자 juk@